

SG, 에코스틸아스콘으로 BMW드라이빙센터 서큘러 코스 공사 완료

- ▶ 드라이빙센터 현장 특성 상 에코스틸아스콘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
- ▶ 국내 최초 친환경 기술인 에코스틸아스콘을 미래 친환경 도로산업으로 개척해 나갈 것

<2021-03-25> 아스콘·레미콘 제조기업 SG(255220, 대표이사 박창호)가 에코스틸아스콘으로 BMW드라이빙센터 서큘러 코스(Circular Course)의 주행포장공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.



<사진=BMW드라이빙센터의 서큘러 코스, SG 제공>

BMW드라이빙센터 서큘러 코스(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77-77 소재, 4,970㎡)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젖은 상태의 노면에서 차량 중심 이동, 스티어링, 현가장치 변화 등의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.

고도의 도로포장 기술을 요하는 드라이빙센터는 현장 특성상 ▲고강도 ▲저소음 ▲내구성 ▲미세먼지 저감의 특징을 가진 에코스틸아스콘이 필요한 구역이다. SG(에스지이)는 이번 BMW드라이빙센터에 프리미엄 아스콘 제품이자 신제품인 에코스틸아스콘을 직접 포장하고 시공했다.

에코스틸아스콘은 천연 골재 대신, 제철소의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제강 슬래그를 천연 골



재 대신 사용하여 아스콘(아스팔트 콘크리트)의 성능을 향상시킨 친환경 제품이다. 일반 아스콘 대비 약 1.5배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광로 및 대로, 대형 중차량 통행지역에 최적화 되어있으며,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 및 아파트 주택가 활용에 적합하다.

이 외에도 에코스틸아스콘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. 일반 아스콘의 평균 수명(2년)보다 약 2배 높은 4년의 수명을 지니고 있다. SG에서는 이 같은 품질 우수성을 적극 활용한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동종 업계 대비 2배 높은 최대 4년까지 에코스틸아스콘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.

일반 아스콘과 에코스틸아스콘의 하자 보증기간을 고려하면 일반 아스콘 대비 약 41.3%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.

에스지이 관계자는 “에코스틸아스콘은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우수한 시공 사례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”며 “인천 미추홀구 고속종점지하차도와 서울시 용산 경찰서 앞 버스정류장, E1 컨테이너 터미널은 우리가 손 꼽는 대표적인 시공 사례다”고 말했다.

SG는 ‘인천 미추홀구 고속종점지하차도’ 구간에 에코스틸아스콘을 사용하여 잦은 바닷물 지하 침투와 균열 및 파손 등으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했으며, ‘서울시 용산 경찰서 앞 버스정류장’의 저소음과 시인성(색 인식) 확보를 위해 에코스틸아스콘 칼라로 시공을 완료한 바 있다.

이 외에도 항만에 위치해 있고, 트레일러와 대형트럭, 컨테이너 박스 등 하중이 강한 무게를 견뎌야 하는 ‘E1 컨테이너 터미널’에 에코스틸아스콘으로 포장 시공을 완료하여 고강도와 고내구성, 미세먼지 저감 등을 실현시켰다.

SG 관계자는 “에코스틸아스콘의 제조 특허를 연 내에 건설 신기술로 인증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며 “국내 최초 친환경 기술인 에코스틸아스콘을 미래 친환경 도로 산업으로 개척해나갈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